

연구논문

출산 전후 부부의 공유활동 변화*

이진숙** · 이윤석***

이 연구는 출산 전·후에 변화하는 부부의 공유활동을 여성가족패널조사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산은 생애과정 중 개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생애사건이며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 역할 때문에 발생하는 과업들로 인해 부부 관계는 역할 부담 또는 역할 갈등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는 부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결혼 생활을 안정시키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며, 부부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맺어질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부모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부부 간 공유활동 빈도의 변화를 파악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부 간 일상생활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녀가 부부 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출산, 부부 공유활동, 부모로의 이행기, 부부 관계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2020S1A3A2A0309677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워킹페이퍼로 발표된 내용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jsl@kwdimail.re.kr),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yslee@uos.ac.kr), 교신저자.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가족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확산되는 개인주의에 따라 한국 사회 또한 점차 개인의 생활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가족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결혼의 안정성이 취약해짐에 따라 부부 관계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는 당사자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나,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부부 관계는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의 질은 부부 간 상호작용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 여가활동, 동거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부부 관계를 결정하기도 하며, 그리고 가족 생애주기 관점에서 어느 시기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라도 부부 관계는 변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부부 간 일상의 공유라 할 수 있다. 부부는 한 가정의 일원으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 가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공유의식 일 것이다. 부부가 실제 일상생활을 서로 얼마나 공유하는지 혹은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따라 유대감 및 친밀감이 형성되고, 이는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로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상호작용 중에서도 부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만족도와 같은 단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중요한 요소인 부부 간 상호작용활동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어느 때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부모로의 전환기(transition to parenthood)일 것이다(Birchler 1992; Kluwer 2010). 일찍이 Lemasters(1957)는 첫 자녀의 출생이 가족에게는 일종의 ‘위기’ 순간이라고 지칭하면서 가장 중대한 생애사건이라고 언급하였다. 양자 간에 맺어진 부부 관계가 제3자의 출현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Umberson et al. 2010).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부 관계는 상당 부분 자녀에 의해 재편된다.

가족 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족은 다양한 생애사건에 따라 확대, 축소,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진미정 외, 2014), 무엇보다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여 독립하기까지 부부는 자녀 중심으로 일상을 설계하고 살아가며 부모 역할에 따른 자녀 양육에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Cowan & Cowan 1998).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 익숙하지 않은 낯선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처음 부모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부부에게는 이전과 다른 징후들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는 부부에게 대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며 가족 결속력을 높이고 이혼의 위험을 줄이고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Cowan & Cowan 1988; Brinley 1991; Bradbury et al. 2000) 반면에, 부모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의 부담과 자녀 중심의 일상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감소로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역할 분담에 따른 부부 간 갈등이 증가하기도 하여 부부 관계의 질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Crohan 1996).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사 및 돌봄 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발생하는 불공평한 가사 분담(Perry-Jenkins & Claxton 2011)과 부부 관계의 질 및 결혼만족도 하락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다(LcMasters 1957; Dyer 1963; Kluwer 2010).

부모로의 이행기에는 부부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오제는 2011; Musick et al. 2020).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상 생활이 조직되고 하루 일과가 조율된다. 이 시기의 여성은 임신·출산을 겪으며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시점이기도 하며, 동시에 남성은 주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별 분업이 공고해지는 때라 할 수 있다(Drabe & Stanfors 2009). 이때의 부부 관계와 부부의 일상은 이후 펼쳐질 가족 생애주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Gottman & Krokoff 1989).

나이가 부부관계에 대한 탐색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 따른 출산 의향 및 후속 출산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Guzzo & Hayford 2020).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은 당시 사회적·문화적인 영향 및 가치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주체는 부부 당사자들이며, 이들의 상호 협의에 따른 결과가 출산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정미라 외 2013; Lawrence et al. 2008)한다는 연구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이 출산 의향 및 후속 출산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부모로의 이행기를 살펴보는 연구는 대부분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과 같은 경제활동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이재열 1996; 박수미 2002; 은기수 2018).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큰 변화가 생기고, 경력단절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애과정 속에서의 선택은 개인이 온전히 선택한다기보다, 주변 환경에 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정을 꾸려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협업 관계이기 때문이다(Jansen & Liefbroer 2006). 그렇기 때문에 경력단절이라는 생애사건은 가정 내 역할 관계에 대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모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은 이후의 삶을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부부 관계에 대한 이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부모로의 이행기가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만큼 관련 연구 또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출산을 전후로 한 부모로의 이행기의 부부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이용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되어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관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전과 후의 변화하는 부부 공유활동의 빈도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 전과 후의 부부 공유활동의 빈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녀의 탄생이 부부의 일상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부부 간 관계를 가늠하여 출산과 부부관계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부모로의 이행기와 결혼만족도

부모로의 이행기가 개인과 가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연구들이 이 시기 부

부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Kluwer 2010; Perry-Jenkins & Claxton 2011). 부모로의 전환기는 자녀가 탄생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간 변화가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격동의 시기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LeMasters 1957; Dyer 1963; Crawford & Huston 1993). 자녀의 탄생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동시에 자녀 재우기, 우는 아이 달래기와 같은 부모가 되어 처음 맞닥뜨리는 일을 함께 수반하며 부부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주제는 부부관계 질, 혹은 결혼 만족도 파악과 같은 내용으로 다소 한정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부부 간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거나(Driver & Gottman 2004; Kusner et al. 2014; Lavner et al. 2016) 불평등한 가사분담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Jansen & Liefbroer 2006; Kristiina et al. 2008; Moller et al. 2008; Gallegos et al. 2020).

부부 관계의 질에 대하여 대다수의 연구가 첫 출산을 경험하여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Perry-Jenkins & Claxton 2011; Gallegos et al. 2020). 특히 여성들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Jackson et al. 2014)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늘어난 가사일과 공평하지 않은 가사분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Jansen & Liefbroer 2006; Kristiina et al. 2008; Moller et al. 2008; Dew & Wilcox 2011). 급증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더불어 자녀 출생과 여가시간의 감소,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다(Perry-Jenkins & Claxton 2011). 가족 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모로의 이행기는 이후 가족이 다양한 생애사건을 경험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Musick et al. 2020), 이 시기의 부부 관계는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로의 이행기의 결혼만족도 파악은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다.

2. 부부 공유활동과 부부관계의 질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부 간 상호작용 중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부부 관계에 큰 역할을 한다(서미숙·성효용 2017). 부모가 되는 시기에 부부는 과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까? 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데, 이는 함께하는 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자녀가 태어나면서 추가된

집안일과 아이돌보기로 인하여 개인의 여가시간은 물론 부부가 함께 보내는 가용시간도 줄어들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Dyer 1963; Crawford & Huston 1993). 특히 공유시간이 여가시간일 경우, Claxton & Perry-Jenkins(2008)는 자녀 출생 이후의 부부 공유 여가와 독립 여가 모두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아내는 남편보다 부부 공유시간에 대하여 더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은 가족과의 여가를 가족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가족끼리의 여가활동은 즐거움을 위하기보다 가족생활의 일환으로 책임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Shaw & Dawson 2001). 따라서 부부의 공유시간에 대한 측정은 해당 활동을 여가로 볼 것인지 혹은 가족에 대한 역할 수행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여가’가 아닌 ‘일’에 대한 공유시간이라면 어떨까? 부모 이행기에 새롭게 맡게 된 부모 역할로 인하여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여가활동이 아닌 부모 역할에 따른 새로운 과업들을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Huston et al. 1986). 하지만 Claxton & Perry-Jenkins (2008) 연구에서는 부모 이행기 부부의 공유활동 성격과는 관계없이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대체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과 부부관계의 질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이지연·그레이스정 2015), Shaw & Dawson(2001)의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가족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의 여가향유와 결혼 만족도 간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한 Crawford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평가가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관건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 이행기의 여가활동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Crawford et al.(2002)의 종단연구에서는 새로 부모가 된 부부는 남편의 독립적 여가 시간은 줄이면서, 아내가 선호하는 여가를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우 본인들의 관심사보다 커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만족감과 즐거움이 감소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Crawford et al. 2002; Kristiina et al. 2008). 그리고 커플의 공유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는 향상하나, 남편이 혼자 하는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하락하게 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적절한 여가활동 분배와 공유시간 확

보가 중요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부모이행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이기영 외(1995) 연구에서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부부는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운동 및 스포츠 관람, 가족·친척 방문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보통 수준의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나,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지, 얼마나 함께 하는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3. 부부의 공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의 공유활동과 부부관계의 질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부 공유활동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차이가 나타날까? 먼저 이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요인인 자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부간 공유여가시간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White 1983; Hill 1988). 반면 여가활동 시간은 자녀 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rawford et al. 2002).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부 간 여가공유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이지연·그레이스정(2015)은 어떤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의 절반 가량이 연극이나 스포츠 관람, 산책 및 조깅과 같은 운동을 지난 한 달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30대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문화 및 운동 활동을 함께 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30대는 보통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부 개인의 가용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부 간의 여가 시간 또한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대 식구 및 친정 식구와의 교제 시간은, 동거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 돌봄에 조부모의 조력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다른 의미로 자녀가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친정 및 시대 식구와의 교제가 여가의 성격을 띠는지, 돌봄 책임이 확장된 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부부의 특성에 따라 공유활동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유시간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기영 외 1995; 신명숙·옥경희 2014). 조미라(2018)의 연구에서는 근로 시간이 긴 배우자를 둔 부부의 공유시간은 감소하였고, 비표준 시간대에 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시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의 질 저하를 예상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공유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부 중심의 생활을 중시한다고 해석된다(이기영 외 1995).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공유시간이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교제활동시간이 증가되었다(이지연·그레이스정 2015)

그러나 부모로의 이행기에 놓인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개 부부 간 갈등과 부부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과 관계의 질은 부부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로서, 그중 하나의 요인인 부부 공유활동을 선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 관계의 질과 부부 공유시간 간에 상관관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가 좋은 커플이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부부 간 공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로써 서로 간에 이해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결혼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부 공유활동과 부부관계의 질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질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의 공유활동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출산 전후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공유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아내와 남편의 특성에 따른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는 출산 전·후의 부부 간 공유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 1차~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의 일자리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로서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7차 조사까지 완료하였다.¹⁾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이며, 1차 조사 시 응답한 원적격가구원과 연령 상승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진입한 신규적격가구원을 포함하여 7차 조사까지 약 1만2천여 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다.²⁾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성의 생애사건 전·후의 삶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출산 전후의 대상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의 출산 경험은 패널로 첫 진입할 경우 전생애 출산경험을 응답하게 되고, 그 후로는 ‘지난 조사 이후’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을 모두 응답한다. 따라서 패널로 진입한 이후의 임신과 출산의 횟수 및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널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응답자가 모든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난 조사’가 언젠인지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임신과 출산 횟수를 응답하는 결과가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출산 전후’의 부부공유시간 변화는 출산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난 조사’가 ‘바로 직전 조사(n 차)’인 경우만을 택하였으며, 그 사이에 출산한 자녀 수($n+1$ 차)가 단 1명이 되도록 하였다.³⁾ 그 결과 조사 대상자마다 출산 전후 시점이 각기 달리 집계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격년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지난 조사 이후인 2년 동안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그 경우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2명 이상인 경우가 혼재되

1)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2차 조사를 완료, 그 이후로 격년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어 3차년도(2010년)부터 7차년도(2018년)까지 완료되었다.

2) 패널의 노후화로 인한 이탈과 마모를 보완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6차 조사 시 2,049가구(2,486명)를 추가하였다.

3) 예를 들어 출산 전 조사 차수가 3차인 경우 출산 후 조사 차수는 4차이며 그 사이 출산한 자녀 수는 1명인 것이다.

어 출산 후의 부부 공유활동 변화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전 조사와 현재 조사 사이에 출산한 자녀 수가 1명인 케이스만을 추출하여 결측치 등을 제외한 최종 758케이스를 확보하였다.⁴⁾

2. 측정도구

위에 따라 추출된 케이스는 출산 전(n 차)과 후($n+1$ 차) 시점의 정보들이 쌍으로 생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 볼 부부의 공유활동에 대한 변수만을 출산 전과 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은 출산 전(n 차) 조사 시의 정보를 활용한다. 즉, 출산 전의 특성에 따른 출산 후의 부부의 공유활동 빈도를 살펴보는 동시에, 출산 전과 후의 부부 공유활동 빈도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출산 전·후의 부부 공유활동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부부 공유활동의 빈도를 사용하고자 한다.⁵⁾ ①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②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③ 시댁 행사⁶⁾, ④친정 행사⁷⁾ 4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주일 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측정한 것이다.⁸⁾ 빈도는 (1) 한 달에 한 번도 안 함, (2) 한 달에 1회 정도, (3) 2주에 1회 정도, (4) 일주일에 1회 정도, (5)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한다. 단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구 내 여성만이 조사 대상이므로, 여성이 응답한 부부의 공유활동에 대한 결과이다.

부부 공유활동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특성에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개인

4) 직전 조사 이후 출산 자녀 수가 1명인 경우는 모두 758케이스이지만, 여성 개인으로 집계하면 703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출산 전·후의 비교이므로, 출산 전·후의 케이스를 연구대상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4개 활동 항목을 여가활동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지연·그레이스정(2015) 연구에서는 영화·공연·스포츠 관람/산책·조깅·등산 등 운동/친정 가족 만나기/시댁 가족 만나기 4개 활동 모두 여가활동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친정 및 시댁 가족과의 만남이 반드시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아내의 경우 일종의 가족에 대한 책임, 또는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Shaw & Dawson 2001)이 있기 때문이다.

6) 부부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들을 만나기.

7) 부부가 같이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형제들을 만나기.

8) 여성가족패널에서는 부부 공유시간에 대하여 ①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②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③ 시댁 행사, ④ 친정 행사 외에 사회봉사 및 공동체참여를 4차 조사 이후부터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7차 자료를 모두 활용하기에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 활동은 제외하였다.

소득이 포함된다. 개인특성 중 연령의 경우 30세 미만과 3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40대 이상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는 취업 여부만을 포함하였다. 출산 시기 여성의 경우 휴직 중이거나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본격적인 경력단절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태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취업자라 하더라도 비율이 적어 그에 따른 결측치가 발생하여 종사상 지위나 근로시간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취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여성이 남편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결측치가 발생하여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일자리 유무만 포함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첫 출산인지 추가출산인지에 따른 부부 공유활동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미취학 자녀 수에 따라 가용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안일(돌봄노동 제외)을 제외한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노동만 해당)을 도와주는 사람⁹⁾ 여부와 자가소유 여부를 포함한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부가 가용할 시간이 늘어나 공유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소유는 가구의 경제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부간 공유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출산 전의 특성이 출산 후의 부부의 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출산을 전후한 부부의 공유활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아내와 남편 간의 분포 차이를 파악하여 아내와 남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 때의 특성은 출산 전의 특성이다. 다음으로 출산 전과 후의 공유활동 빈도에 대하여 항목별로 아내와 남편 각각의 평균값과 전후 비교를 검증하였다. 먼저 수행 정도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도 안 함(1)’ ~ ‘일주일에 2회 이상(5)’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증감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가/감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한 달에 1회 정도(2)’였다가 출산 후 ‘2주에 1회 정도(3)’로 변화했거나 그 이상인 ‘일주일에 2회 이상(5)’으로 변화한 경우 증가하였다고 보았고, 출산 후에도 여전히 ‘한 달에 1회 정도(2)’로 같을 경우는 유지, 출산 후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함(1)’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감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9) ‘집안일(돌봄노동 제외)’을 도와주는 사람 여부이다.

방식에 따라 증가/유지/감소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 전 아내와 남편 특성이 출산 후 부부의 공유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부 공유활동이 유지되는 집단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분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출산 전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아내가 남성보다 2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편은 대부분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아내보다 남편의 경우 대학교 이상이 절반 가까이(50.9%) 차지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유무를 보면 여성은 일자리가 없는 경우(73.0%)가 있는 경우(27.0%)보다 많았다. 이는 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30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됨을 반영한다. 반면 남성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있는(92.1%)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으로 인해 늘어난 가사는 여성이 담당하고, 바깥일은 남성이 담당하게 되는 성별분업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Hochschild 1989). 일을 하는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아내는 약 182만 원인 반면 남편은 그보다 약 100만 원 이상 많은 2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를 보면 여성의 경우 조사 당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인 경우가 74.1%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내는 100~200만 원을 버는 비율이 1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 원이 8.1%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가 8.2%에 그쳤고, 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구간이 20.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단 0.3%로, 남성의 경우 일을 하면서 버는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인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버는 남편이 있는 경우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 이후 자녀를 1명 출산한 경우 그 자녀

가 첫출산, 추가출산인 비율이 각각 25.3%, 74.7%로 나타났다. 패널로 진입했을 때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가 보유인 경우는 51.9%로 과반 이상이였다.

<표 1> 출산 전 조사대상의 특성

(단위: 명, %, 만원)

구분		아내		남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 특성	연령	20대	200	26.4	73	9.6
		30대	558	73.6	685	90.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54	33.5	218	28.8
		전문대 졸	218	28.8	154	20.3
		대학교 이상	286	37.7	386	50.9
	취업 여부	일자리 없음	553	73.0	60	7.9
		일자리 있음	205	27.0	698	92.1
	개인 소득	없음	562	74.1	62	8.2
		100만 원 미만	18	2.4	2	0.3
		100~200만 원 미만	85	11.2	42	5.5
200~300만 원 미만		61	8.1	155	20.5	
300~400만 원 미만		21	2.8	105	13.9	
400~500만 원 미만		3	0.4	39	5.2	
500만 원 이상		8	1.1	353	46.6	
평균 소득			182.5		292.1	
가구 특성	자가 소유	아니오	365		48.2	
		예	393		51.9	
	출산 유형	첫 출산	192		25.3	
		추가 출산	566		74.7	
전체		758	100.0	758	100.0	

2. 출산 전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출산 전후 부부의 공유활동 수행 정도는 <표 2>와 같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수행 정도의 전후 평균값 비교를 해본 결과, 모두 출산 전보다 출산 후의 부부공유시간이 증가하였다. 그중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에 대한 활동 정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다음으로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친정 가족 만나기, 시댁 가족 만나기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 전에는 시댁 가족 만나기를 가장 적게 수행하였고, 친정 가족 만나기와 운동은 같은 정도로 활동하였다. 영화·공연·스포츠 관람은 4.3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 있었던 반면 그 외 활동들은 그에 못 미치는 2주에 1회 정도 같이 활동한 것이다. 출산 후에 여전히 영화·공연·스포츠 관람은 수행 정도가 4.6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계속 부부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을 2주에 1회 정도 하다가 빈도가 늘어나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시댁이나 친정 가족들 만나기는 출산 전이나 후나 모두 2주에 1회 정도 하고 있었다.

<표 2> 출산 전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구분	전		후		차이	t-test
	평균	S.D	평균	S.D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4.3	0.958	4.6	0.721	0.3	***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3.7	1.322	4.3	1.152	0.5	***
시댁 행사	3.6	1.296	3.7	1.253	0.1	*
친정 행사	3.7	1.200	3.9	1.206	0.2	***

* $p < .05$, ** $p < .01$, *** $p < .001$.

출산 후에는 시댁 가족 만나기보다 친정 가족 만나기의 빈도가 좀 더 증가하였다. 출산 후에는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부부 공유활동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부부가 같이 하는 활동은 모두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을 계기로 부부 간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비취업 아내인 경우 공유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이지연·그레이스정 2015)과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현재

출산을 경험한 직후의 여성들이므로 대다수가 비취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친정, 시댁 식구와의 교제활동은 증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동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 활동이 감소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가 생길 경우,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기보다 가족 중심으로 일상이 전환되어 문화 활동도 함께 증가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표 2>의 4가지 활동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 후 겪게 되는 신체 및 정신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울감 해소를 위한 부부의 한 방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Johansson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아내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내의 산후 우울감이 남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표 3> 출산유형과 출산 전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구분	첫 출산(n=192)					추가 출산(n=566)						
	전		후		차이	t-test	전		후		차이	t-tes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3.8	1.122	4.6	0.802	0.8	***	4.5	0.838	4.6	0.691	0.2	***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3.4	1.376	4.3	1.156	0.9	***	3.8	1.287	4.3	1.152	0.4	***
시댁 행사	3.5	1.294	3.6	1.252	0.1		3.6	1.297	3.7	1.253	0.1	
친정 행사	3.5	1.224	3.7	1.281	0.1		3.7	1.188	3.9	1.172	0.2	***

* $p < .05$, ** $p < .01$, *** $p < .001$.

<표 3>의 출산 유형에 따른 출산 전·후의 부부 공유활동을 살펴보면, 첫 출산한 부부와 추가 출산한 부부 모두 영화·공연·스포츠 관람과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수행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출산한 부부는 첫 출산인 부부와 달리 친정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첫 출산 이후의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활동에 대한 부부의 공유활동 정도가 추가 출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로의 이행기, 즉 첫 자녀 출산 이후 부모가 되는 시기의

질적 변화가 가장 크다는 이전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이다(LeMasters 1957; Lawrence et al. 2008). 그리고 추가 출산의 경우, 첫 출산보다 운동을 공유하는 정도가 더 높아졌다. 출산 유형에 관계없이 출산 후에는 결국 공유활동 빈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부부공유시간 항목별 수행 정도 증감 비교

그렇다면 4개의 공유활동 항목별로 수행 빈도가 출산 후에 감소되거나 유지, 증가되는 비율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항목별 수행 정도 증감 (단위: 명, %)

구분	감소	유지	증가	계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117	373	268	758
	15.4	49.2	35.4	100.0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133	294	331	758
	17.6	38.8	43.7	100.0
시댁 행사	213	292	253	758
	28.1	38.5	33.4	100.0
친정 행사	198	272	288	758
	26.1	35.9	38.0	100.0

앞의 수행 정도의 결과에서 가장 증가분이 큰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의 경우 출산 전과 비교해 출산 후에 증가한 비율은 43.7%, 유지는 38.8%, 감소 비율은 17.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화·공연·스포츠 관람은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49.2%로, 출산 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는 활동 빈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가 비율은 35.4%, 감소 비율은 15.4%로 운동과 마찬가지로 감소 비율은 20% 미만으로 적었다. 다음으로 가족들 만나기 중에서 시댁 가족을 만나는 경우 출산 전과 마찬가지로 출산 후에도 접촉 빈도가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3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증가한 비율이 33.4%, 감소 비율이 28.1%로 대다수는 출산 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만나거나 혹은 조금 더 만나고 있었다. 친정 가족들 만

나기의 경우 시댁 가족 만나는 것과 달리 출산 후에 접촉 빈도가 증가한 비율이 3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35.9%, 감소가 26.1%로 나타났다. 출산 전과 비교하면 모든 부부 공유활동 수행 정도가 출산 후에 감소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산 유형에 따른 증감비율을 살펴보면 <표 4>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5>). 첫 출산인 부부는 자녀가 생기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과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활동이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추가 출산인 경우에는 두 활동 모두 유지 비율이 높았다. 시댁 가족이나 친정 가족을 만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첫 출산과 추가 출산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첫 출산 및 추가 출산 부부 모두 시댁 가족 만나기는 수행 정도가 유지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친정 가족 만나는 것은 두 유형 모두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합하여 보면, 첫 출산인 부부는 출산 전, 즉 자녀가 없을 때보다 영화·공연·스포츠 관람과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활동을 부부가 더욱 자주 하게 되는 것이며, 추가 출산인 부부는 출산 전과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표 5> 출산유형과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항목별 수행 정도 증감 (단위: 명, %)

구분	첫 출산(n=192)				추가 출산(n=566)			
	감소	유지	증가	계	감소	유지	증가	계
영화·공연· 스포츠 관람	23	63	106	192	94	310	162	566
	12.0	32.8	55.2	100.0	16.6	54.8	28.6	100.0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27	61	104	192	106	233	227	566
	14.1	31.8	54.2	100.0	18.7	41.2	40.1	100.0
시댁 행사	55	74	63	192	158	218	190	566
	28.6	38.5	32.8	100.0	27.9	38.5	33.6	100.0
친정 행사	59	59	74	192	139	213	214	566
	30.7	30.7	38.5	100.0	24.6	37.6	37.8	100.0

4.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빈도 변화

마지막으로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공유활동 수행 정도가, 출산 후에는 유지 대비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집단은 출산 전과 비교해 부부 공유활동 수행 빈도가 출산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집단이다. 이를 위하여 출산 전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른 출산 후 감소 및 증감할 확률에 대해 부부 공유활동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활동 항목을 여가의 성격을 지닌 영화·공연·스포츠 관람과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활동을 먼저 살펴보고(<표 6>), 부부 외 다른 가족을 만나는 시댁 및 친정 가족 만나기 수행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표 7>).

먼저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활동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 경우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중 스포츠 관람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이기영 외(2015)의 연구에서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 중심의 생활을 중시하여 부부 공유활동이 증가하는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있으면 출산 후 남편과의 스포츠 관람 활동을 유지하기보다 증가시킬 확률이 높아졌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아내가 일자리가 있는 경우 개인의 독립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공유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상이한데(Crawford et al. 2002), 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자녀를 온전히 혼자 돌볼 필요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남편과 관람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을 하더라도 개인소득이 많아질수록 스포츠 관람을 남편과 같이 수행하는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될 확률이 커졌는데, 이는 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소득 또한 높아지므로, 가용시간 감소에 의해 스포츠 관람 정도가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조미라 2018). 추가 출산인 경우 남편과의 스포츠 관람, 운동하기의 수행 정도가 출산 전처럼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또한 출산 전과 비교해 출산 후에 유지되기보다 증가할 확률은 낮아졌다. 아마도 추가 출산의 경우, 기존 자녀에 더해 새로운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과되는 과업들에 의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출산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스포츠 관람 수행 정도가 출산 후에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유활동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자녀는 부부 간 관람 및 운동과 같은 외부 신체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수가 많을수록 그러한 작용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일자리 있는 남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와 달리 스포츠 관람을 하는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커져 앞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이기영 외 1995; 조미라 2018).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활동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 모두 출산 후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에 대한 특성별 한계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 후 운동 활동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커졌으며, 첫 출산과 달리 추가 출산인 경우 유지에 비해 감소할 확률이 커졌다. 이는 앞서 스포츠 관람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의 출산 전은 출산하였다고 응답한 조사 차수(n 차)의 바로 직전 조사 차수($n-1$)이기 때문에, 짧게는 1년 이내에서 2년 사이 출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응답 차수(n 차)의 자녀가 갓난아기일 가능성이 크고, 이때에는 아내의 산후조리가 필요하는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시기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아내, 남편 모두 출산 후 운동 활동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남편이 일자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와 달리 출산 후 아내와 함께하는 운동 활동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커졌다.

부부 외 가족을 만나는 활동으로 시댁 및 친정 가족 만나는 활동 수행 정도의 증감 확률 결과를 보면, 먼저 시댁 가족 만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남편의 특성에 따른 한계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후 시댁 가족을 만나는 수행 정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적어지고, 증가할 확률도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되기보다 증가할 확률이 적어졌으며, 남편 소득이 많을수록 시댁 가족 만나는 빈도가 출산 후에도 유지되기보다 감소하게 될 확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 가족 만나는 활동을 보면 아내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 후 친정 가족을 만나는 빈도가 유지되기보다 감소할 확률이 낮아졌다. 반면 남편은 아내와 달리 가구 내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출산 후 친정 가족을 만나는 빈도가 유지되기보다 증가할 확률이 커졌다. 앞의 스포츠 관람이나 운동 활동과 달리 출산 자녀 수는 시댁 가족과의 교제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친정 가족 만나는 활동에는 출산 자녀 수가 아내에게만 감소할 확률이 낮게 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는 부부끼리의 활동을 함께 하도록 일련의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그 외 가족과의 상호작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의 이지연·그레이스정(2015)의 연구에서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조부모와의 교제활동이 높아지는 결과와 조금 상이한데, 선행 연구에서는 동거하고 있는 미취학자녀로 한정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출산한 자녀수로 한정하여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아내와 남편 특성에 따른 출산 후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운동 활동 증감 확률에 대한 추정결과

구분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아내		남편		아내		남편	
		vs. 감소 <i>Coef.</i>	vs. 증가 <i>Coef.</i>						
연령		-0.077*	-0.002	-0.044	-0.021	-0.045	0.000	-0.015	-0.016
교육년수		0.039	0.070	0.043	0.062	0.241***	0.065	0.125*	0.063
일자리 (없음)	있음	-1.016	0.806*	1.240*	0.377	-0.285	0.122	1.526*	0.028
개인소득		0.461**	-0.176	-0.056	0.065	0.085	-0.030	0.021	0.072
출산유형 (첫출산)	추가 출산	1.003*	-0.747**	0.938*	-0.857**	0.975*	-0.159	0.917*	-0.248
출산 자녀 수		-0.761**	-0.227	-0.762**	-0.178	-0.511*	-0.223	-0.559*	-0.166
자가소유 (없음)	있음	0.184	-0.093	0.176	-0.049	-0.238	-0.119	-0.205	-0.081
도움주는 사람 (없음)	있음	-0.732	-0.215	-0.718	-0.109	0.139	-0.277	0.087	-0.275
<i>N</i>		758	758	758	758	758	758	758	758
Log likelihood		-718.520	-718.520	-723.366	-723.366	-762.171	-762.171	-762.173	-762.173
Pseudo <i>R</i> ²		0.0568	0.0568	0.0504	0.0504	0.0281	0.0281	0.0280	0.0280

* $p < .05$ ** $p < .01$ *** $p < .001$.

() : 기준집단.

<표 7> 아내와 남편 특성에 따른 출산 후 시댁/친정 교제 활동 증감 확률에 대한 추정결과

구분		시댁 가족 만나기				친정 가족 만나기			
		아내		남편		아내		남편	
		vs. 감소 <i>Coef.</i>	vs. 증가 <i>Coef.</i>						
연령		-0.010	0.003	-0.083***	-0.061**	0.002	-0.010	-0.027	-0.029
교육년수		-0.078	-0.079	-0.005	0.040	-0.108*	-0.065	-0.001	0.018
일자리 (없음)	있음	-0.293	-0.108	0.080	-0.881*	-0.143	0.080	0.251	0.182
개인소득		0.174	0.076	-0.139*	0.043	0.249	0.045	-0.082	-0.046
출산유형 (첫출산)	추가 출산	-0.053	-0.022	0.081	-0.049	0.149	-0.524	0.176	-0.490
출산 자녀 수		0.018	-0.008	0.072	0.124	-0.419*	0.190	-0.383	0.223
자가소유 (없음)	있음	-0.019	0.049	0.047	0.130	-0.050	0.035	-0.034	0.050
도움주는 사람 (없음)	있음	-0.132	0.204	-0.039	0.278	-0.319	0.540	-0.209	0.593*
<i>N</i>		758	758	758	758	758	758	758	758
Log likelihood		-823.304	-823.304	-812.212	-812.212	-806.627	-806.627	-810.324	-810.324
Pseudo <i>R</i> ²		0.0039	0.0039	0.0173	0.0173	0.0202	0.0202	0.0157	0.0157

* $p < .05$ ** $p < .01$ *** $p < .001$.

() : 기준집단

V. 맺음말

이 연구는 생애주기에서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으로 인해 부모로의 이행기에 접어든 부부의 공유활동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부부관계 및 가족생활의 변화를 가능케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출산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횡단면 자료를 통한 단편적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표성 있는 방대한 규모의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를 추적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영화·공연·스포츠 관람과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활동 모두 출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감소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이었다. 이는 자녀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시켜 주는 매개체임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전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가 생기거나, 증가할수록 부부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Dyer 1963; Claxton & Perry-Jenkins 2008; 이지연·그레이스정 2015)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활동이 개인이 누리는 여가적 시간이라기보다 부부가 함께 수행하는 일종의 가족 활동 측면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가족 활동을 촉매하는 존재인 자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출산으로 인한 부부 공유활동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부부 관계의 질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의 탄생은 개인의 자유 시간을 제약하며 그로 인한 여가활동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 출산 후에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 활동과,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출산 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을 향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물론 부부가 함께 공유한 시간이기 때문에 출산 이전의 개인 여가시간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출산 후에는 개인의 독립적 여가의 일부가 부부 공유활동으로 전이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부부 간에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부부 관계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함께 보내는 활동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갈등을 겪을 여지도 많아진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가 부부관계가 좋았던 커플들이 함

게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적어도 자녀로 인해 부부 간에 공유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짐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으로 인한 가족 관계 및 가족생활의 변화는 친정 및 시댁 식구 만나기를 통하여 가늠해볼 수 있다. 출산 전보다 이후에 남편과 함께 친정 및 시댁 식구와 교제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통하여 자녀는 부부 단위를 확장시켜 조부모까지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추가 출산의 경우 친정 식구와의 교제 활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녀 돌봄에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얻고자 함이라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조부모들이 손자녀 돌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손자녀가 태어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이 증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출산 후 부부 공유활동 증가로 인하여 추가 출산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출산 의향 및 후속 출산에 여성의 가치관과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의 부부 공유활동의 증가는 아내가 느끼는 남편의 정서적지지 수준이 함께 향상되어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쳐 후속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정미라 외 2013; Lawrence et al. 2008; Guzzo & Hayford 2020).

일찍이 Lemasters(1957)는 첫 자녀의 탄생이 가족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간주하였고, 이후 행해진 다수의 연구에서 이 시기의 부부 관계의 질은 대개 낮아진다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나, 동시에 부부는 새롭게 맡게 된 부모 역할을 습득하며 부부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가족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기회’의 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부모로의 이행기의 부부 공유활동은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그 중심이 되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다. 자녀의 탄생은 분명 개인의 여가활동 및 자유시간 감소,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부부 간 공유활동 또한 증가시킴으로써 가족관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의 출산 관련 정책들은 보통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시술 지원과 같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부모들은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부부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출산을 겪은 부부들의 일상생활

지원 차원에서 가족 단위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부들이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아내의 응답으로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인하여 해석상에 한계점이 있다. 공유활동 빈도 측정은 아내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결과로서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소득과 같은 정보 또한 아내 입장에서 쓰여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의 질은 아내의 인식이 남편의 인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Crawford et al. 2002), 아내의 인식에 따른 응답결과가 부부 관계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내 입장에서의 응답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확장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공유시간에 대한 측정은 아내가 활동 빈도를 응답하는 방식의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아내의 남편 활동에 대한 평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출산 후의 빈도가 확연히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아내의 입장에서 느끼는 남편의 참여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는 남편의 가족 생활에 대한 기여가 높아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단순한 시간량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의 질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해석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Gager & Sanchez(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로의 이행기에 놓인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인식과 인식에 따른 결혼 해체의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유시간 및 부부관계에 부정적 인식이 이혼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의 양과 함께 질에 대한 파악이 수반되어야 하나, 자료의 특성상 해당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한계로 남겨둔다. 그리고 부부 공유활동 항목으로 다소 제한적인 4개의 활동만을 파악하였는데, 부모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의 변화들을 다각도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자료 특성상 패널로 진입한 이후 출산을 경험한 대상만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며 특성 또한 편향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참고문헌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서미숙·성효용. 2017. “배우자 간의 시간 공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14(1): 103-125.
- 신명숙·옥경희. 2014.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부부공유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1): 5-25.
- 오재은. 2011. “첫 아이 출산 후 남편이 경험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8): 73-83.
- 은기수. 2018.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117-150.
- 이기영·김외숙·구혜령. 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3): 113-126.
- 이재열. 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5-44.
- 이지연·그레이스 정. 2015. “어떤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가?: 부부공유 여가시간의 현황과 부부관계의 질에 관한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2): 149-164.
- 정미라·홍소영·박수경. 2013.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259-277.
- 조미라. 2018. “유자녀기혼부부의 노동시간패턴과 가족시간.” 《사회복지정책》 45(4): 5-34.
- 진미정·변주수·권순범. 2014. “한국 가족생애주기의 변화: 1987년 공세권 연구와의 비교.” 《가족과 문화》 26(4): 1-24.
- Birchler, G.R. 1992. “Marriage.” in V.B. Van Hasselt and M. Hersen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pp. 397-419). Plenum Press.
- Bradbury, T.N., F.D. Fincham, and S.R.H. Beac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980.
- Brinley, M.B. 1991. “Should You have a Baby?” in L. Cargan (ed.), *Marriages and Families: Coping with Change* (pp. 248-253).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laxton, A. and M. Perry-Jenkins. 2008. "No Fun Anymore: Leisure and Marital Quality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 (1): 28-43.
- Cowan, P.A. and C.P. Cowan. 1988. "Changes in Marriage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ust We Blame the Baby?" in Michaels G.Y. and W.A. Goldberg (Ed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urrent Theory and Research* (pp. 114-1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wford, D.W. and T.L. Huston. 1993. "The Impact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on Marital Lei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1):39-46.
- Crawford, D.W., R.M. Houts, T.L. Huston, and L.J. George. 2002. "Compatibility, Leisure, and Satisfac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433-449.
- Crohan, S.E. 1996. "Marital Quality and Conflict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frican American and Whit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4): 933-944.
- Dew, J. and W.B. Wilcox. 2011. "If Momma Ain't Happy: Explaining Declines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1): 1-12.
- Drbe, M. and M. Stanfors. 2009. "Does Parenthood Strengthen a Traditional Household Division of Labor? Evidence from Swed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1): 33-45.
- Driver, Janice and Gottman John. 2004. "Daily Marital Interactions and Positive Affect during Marital Conflict among Newlywed Couples." *Family Process* 43: 301-14.
- Dyer, E.D. 1963. "Parenthood as Crisis: A Re-Stud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5 (2): 196-201.
- Gager, C.T. and L. Sanchez. 2003. "Two as One?: Couples' Perceptions of Time Spent together, Marital Quality,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24(1): 21-50.
- Gallegos, M.I., D.B. Jacobvitz, N.L. and Hazen. 2020. "Marital Interaction Quality ov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Role of Parents' Perceptions of Spouses'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6): 766-772.
- Gottman, J.M. and L.J. Krokoff.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uzzo, K.B. and S.R. Hayford. 2020. "Pathways to Parenthood in Social and Family Contexts: Decade in Review, 202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2: 117-144.

- Hill, M.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A Multidisciplinary Hypothesis." *Journal of Family Issues* 9(4): 27-451.
- Hochschild, A.R.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Y: Viking.
- Huston, T.L. S.M. McHale, and A.C. Crouter. 1986. "When the Honeymoon's over: Changes in the Marriage Relationship over the First Year." in Gilmour R. and S. Duck (eds.), *The Emerging Field of Personal Relationships* 109-132. Hillsdale, NJ: Erlbaum.
- Jackson, J.B., R.B. Miller, M. Oka, and R.G. Henry. 2014.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6: 105-129.
- Jansen, M. and A.C. Liefbroer. 2006. "Couples' Attitudes, Childbirth, and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27(11): 1487-1511.
- Johansson, M., Y. Benderix, and I. Svensson. 2020. "Mothers' and Fathers' Lived Experiences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Parental Stress after Childbirth: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15(1): 1722564.
- Kluwer, E.S. 2010. "From Partnership to Parenthood: A Review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2: 105-125.
- Kristiina Moller, Philip C. Hwang, and Birgitta Wickberg. 2008. "Couple Relationship and Transition to Parenthood: Does Workload at Home Matter?"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6(1): 57-68.
- Kusner, K.G., A. Mahoney, K.I. Pargament, and A. DeMaris. 2014. "Sanctification of Marriage and Spiritual Intimacy Predicting Observed Marital Interaction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5): 604-614.
- Lawrence, E., A.D. Rothman, R.J. Cobb, M.T. Rothman, and T.N. Bradbury. 2008. "Marital Satisfaction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41-50.
- Lavner, J.A., B.R. Karney, and T.N. Bradbury. 2016. "Does Couples' Communication Predict Marital Satisfaction, or Does Marital Satisfaction Predict Commun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8(3): 680-694.
- LeMasters, E.E. 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4): 352-355.
- Moller, K., C.P. Hwang, and B. Wickberg. 2008. "Couple Relationship and Transition

- to Parenthood: Does Workload at Home Matter?”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6(1): 57-68
- Musick, K., M.D. Bea, and P. Gonalons-Pons. 2020. “His and Her Earnings Following Parenthood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5(4): 639-674.
- Perry-Jenkins, M. and A. Claxton. 2011.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the Reasons ‘Momma Ain’t Happ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1): 23-28.
- Shaw, S.M. and D. Dawson. 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4): 217-231.
- Umberson D. T. Pudrovska, and C. Reczek. 2010. “Parenthood, Childlessness, and Well-Being: A Life Cours.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3): 612-629.
- White, L.K. 1983. “Determinants of Spousal Interaction: Marital Structure or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3): 511-519.

<접수 2021.11. 05; 수정 2021.11.05; 게재확정 2021.11.16>

Changes in Shared Time by Spouse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in-Sook Le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Yun-Suk Lee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shared time by spouses across transition to parenthood. While childbirth makes a huge difference in life for couples, empirical research on this issue is insufficient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1st to 7th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of Women and Families(KLoWF), this study compares the amount of shared tim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Wives responses that all of activities are increased after the birth of their children. Despite shared time as parents focused on caring for the child, increased time may be experienced as positive couple time.

Key words: Korean Longitudinal of Women and Families(KLoWF), childbirth, shared time, transition to parenthood